



5면

우범기 전주시장, 국가예산 확보 사항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11월 1일 수요일 (음 9월 18일) 제3375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RIS 에너지신산업 사업 추진 본격화

전북도, 도내 대학·기업들과 기업채용 연계 협약 체결  
RIS 예산 활용 기업 기술으로 해결 등 위한 R&D도 지원  
이달 중 농생명 등 채용 연계 협약 RIS 성공 사례 만들 듯

전북도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사업(RIS) 핵심분야 중 에너지신산업 사업단이 발대식 및 기업채용연계 업무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돌입했다.

지난달 31일, RIS 에너지신산업분야 중심대학인 군산대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전북도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군산대 최연성 부총장 등 도내 대학 총장과 이차전지·수소·풍력 등 관련기업 50여개사 관계자 및 에너지분야 관련학과 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전북도와 대학 기업들은 이날 전북도 RIS 3개 핵심분야 중 하나인 에너지신산업분야 지역산업 발전과 지역인재의 도내 취업 및 정주환경을 위해 지·산·학의 협력을 약속하는 의미로 에너지신산업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요 내용은 △에너지신산업 분야 산·학·연·관 프로젝트 운영 △전문인력 양성 및 취업연계 지원 △현장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교육 지원 △기업 기술이해해결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한 R&D 협업 △기업 수요맞춤형 학사운영을 통한 인재양성 및 우선채용 협력 등이다.

이날 협약을 기반으로 앞으로 전북도와 에너지신산업분야 사업단은 도내 관련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 양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RIS사업 예산을 활용해 기업의 기술으로 해결 및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도 활발히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RIS 사업을 총괄하는 JB지산협력력단 기업은 원하는 인재

유형, 기술 지원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기업수요조사를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에너지신산업 사업단은 관련 기업과의 정례 간담회를 통해 소통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기업이 원하는 교과목을 적극 개설·운영해 마이크로디그리 등을 통해 학생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취업역량이 인증된 학생들은 기업들이 우선채용할 수 있도록 적극 연계할 예정이다.

또한, 도내 기업의 기술력 확보 및 강화에도 힘 쓸 계획이다. 실제로 기업들은 RIS 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의 혁신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업 관계자는 "신산업은 기술력이 관건인 만큼 협약을 통해 실제로 에너지신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기술 확보 방안이 마련되고 에너지신산업 핵심요소 및 선도 기술을 확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이번 MOU가 실제로 지역산업을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가 원하는 지역발전 선순환 구축의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도와 대학교, 기업, 학생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11월 중 RIS 핵심분야 중 남은 2개 분야(미래수송기기, 농생명·바이오)에 대한 기업채용연계 협약식을 갖고 기업과 연계한 전국 최고의 지역혁신사업(RIS) 성공 사례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김재훈기자·군산=김관관기자



지난달 31일 군산대학교에서 열린 지역혁신사업(RIS) 에너지신산업 기업채용연계 MOU 체결식에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군산대 최연성 부총장 등 도내 대학 총장과 이차전지·수소·풍력 관련 50여개 기업 관계자 및 에너지분야 관련학과 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부안 내소사 동종,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지정 예고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부안 내소사 동종(扶安 來蘇寺 銅鐘)이 고려시대 한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달 31일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됐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대형 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잘 드러내는 대표작이자 기준종이라고 했다. 동종의 제작시기와 제작자 및 봉안처 등 종에 대한 내력이 기록된 주종기와 이안기가 종의 표면에 배치되어 있다.

주종기를 통해 도인 허백과 종의의 주관 아래 장인 한중서가 700근의 무게로 1222년 제작한 사실을 알 수 있고, 본래 청림사에 봉안됐다가 1850년 내소사로 옮겨진 사실이 이 안기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현재 내소사 보종각에 걸려 있는 이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크기가 가장 크다.

통일신라시대 동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시대 동종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장식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종의 어깨 부분을 장식하

고려시대 한국사 연구 중요한 가치 인정돼 문화재청 지정심의 후 내달 중에 최종 지정

는 입상연판문(立相蓮瓣文)가 표현된 접 몸체에 부조상으로 천인상 대신 흘날리는 천개(天蓋) 아래로 삼존상을 배치한 점, 당좌(檀座)가 4개로 늘어난 점 등이다.

이러한 장식성과 조형성은 이후 고려 후기 동종의 모본이 되었는데, 이를 통해 장인 한중서의 숙련된 기술력과 예술성을 엿볼 수 있다.

이 동종을 제작한 한중서는 13세기 전반부터 중엽까지 활동한 장인으로 민간 기술자인 사장(私匠)에서 시작해 대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관청 소속의 관장(官匠)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는 38년간 고려사 청동북(1213년), 복천사 청동북(1238년), 신흥사 명 소종(1238년), 육천사 청동북(1252년) 등 여러 작품을 남긴 것으로 확인된다.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 '국보'로 지정 예고된 부안 내소사 동종.

이처럼 고려시대 이전 동일 작가가 여러 점의 다양한 작품을 남기고 있는 사례로도 특별한 의미가 있고 그 중 내소사 동종이 그의 대표작품이다.

이 동종은 양식, 의장 구조 등에서 한국법종사와 제작 기술과 기법을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주종기와 이안기 등을 통해

봉안처, 발원자, 제작 장인 등 모든 내력을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뛰어나 국보로 지정해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설명이다.

국가지정문화재 국보 지정 예고된 '부안 내소사 동종(扶安 來蘇寺 銅鐘)'은 예고일로부터 3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문화재청 지정심의 후 12월에 최종 지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정 예고된 사항에 대한 의견은 문화재청 홈페이지 새소식 '문화재 지정예고'란에 게재하면 된다.

권익현 군수는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를 대표하는 대형 동종으로 장인장감과 발원자, 동종의 이문과 정 등이 기록되어 한국법종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우수한 문화유산이 그에게 맞는 가치를 인정받도록 지속해서 문화유산 발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부안군은 국보로부터 보물(8종, 308점), 국가사적(6곳), 국가명승(3곳), 천연기념물(5종), 국가민속문화재(9종), 국가중요무형문화재, 근대문화유산 등 국가 문화유산의 보호고로 알려졌다. /부안=김석진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축! 전주매일 창간

mu 무주군



### "청정자연 무주! 최고의 상품에 최선을 다해"

## 무주반딧불 농·특산물

무주반딧불사이버장터

검색

http://mj1614.com

